

# 외로웠던 80년대 광주, 이젠 지구촌 곳곳서 연대 추모

## 5·18 39주기 기념행사 어디서 어떻게 열리나

#. 1966년 경북대 간호대를 졸업하고 독일로 건너간 최영숙(여·77)씨는 1980년 5월 어느 날 교민들과 모여 한 장의 초정장을 만들었다. 5월 30일 금요일 오후 4시 베를린 쿠담(우리의 종로)에 교민들이 모여 광주시민들을 지지하고 군사독재정부에 항의하는 시위를 열자는 내용이었다. 당시 독일 교포사회는 텔레비전 뉴스를 통해 전투환이 앞세운 신군부가 광주에서 시민들을 무참히 학살했다는 내용을 접한 상태였다. 광주를 위해 연대하는 시위를 열자는 초정장을 계기로 최초의 파독간호사와 광부, 유학생들은 유럽 교민들과 함께 지난 39년을 한결같이 5·18을 기념하는 다양한 행사를 열고 있다. 1980년대 초반 외로웠던 광주에 손을 내민 것은 독일과 미국 일부 도시 교민들이 그랬다면, 이제는 전국 주요도시와 세계 주요도시에서 5·18을 기념하는 행사가 치러지고 있다.

세계 각 도시 한인회 등 주도 사진전·영화제·캠페인 열려 내년 40주기 전국·세계화 확산

이사장도 직접 참석, 교민들을 격려하고 감사를 표시한다. 밴쿠버와 토론토 등 캐나다에서도 5·18 민주화운동 밴쿠버 기념사업회, 캐나다 법민주원학회의 주관으로 기념식이 개최된다. 호주 시드니,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는 재외동포뿐 아니라 각국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5·18 사진전, 캠페인이 진행된다. 홍콩과 상해·심천·대련 등 중국 3개 도시에서도 호남향우회, 한인회 등을 중심으로 5·18기념식이 거행되고, 브라질과 뉴질랜드, 일본 주요 도시에서도 호남향우회, 한인회가 주축이 돼 기념식과 기념행사를 연다.

자유한국당 일부 의원은 5·18 망언과 노골적인 진상조사위 구성 외면 등 우리사회 일각의 퇴행적 움직임에도, 내년이면 40주년을 맞이하는 5·18민주화운동은 광주를 넘어 전국으로, 세계로 뻗어나가는 모습이다. 올해 5·18기념행사 역시 대구·경북을 비롯 전국 11개 광역시·도와 베를린·뉴욕·도쿄 등 9개국 23개도시에서 열린다. 미국에서는 애틀랜타·시애틀·뉴욕·워싱턴·달라스·필라델피아·로스앤젤레스·시카고·메릴랜드 등 9개 도시에서 현지 대사관, 한인회 등 교민들이 주축이 돼 기념식과 강연회가 18~19일 개최된다. 독일 베를린에서는 자유법 5·18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가 주관해 18~26일 기념식과 자유법오월민중제를 치른다. 자유법오월민중제에는 이철우 5·18기념재단

서울지역 5·18기념행사위원회는 17~19일 시청광장에 5·18분향소를 설치, 운영한다. 같은 기간 서울시청 광장에서는 5·18 역사왜곡 진상규명 캠페인과 기념식, 5·18골든벨, 5·18영화제(택시운전사)가 열린다. 부산지역 5·18기념행사위원회는 18~19일과 25~26일 청소년과 대학생들을 위한 광주역사기행을 준비했고, 대구경북지역 5·18기념행사위원회는 17~19일 기념식과 사진전, 광주역사기행을 마련했다. 울산에서는 '대한민국 100년, 5·18을 말한다', '울산 518을 기억한다'는 주제의 기념행사가, 강원에서는 기념식과 특별초청 강연이 치러진다. 제주에서는 5·18평화문화제, '4월에서 5월로'라는 이름의 평화사건전이 개최된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 전국·국외 5·18 행사 일정

| 일시              | 행사명                                 | 장소                   | 주관                   |
|-----------------|-------------------------------------|----------------------|----------------------|
| 5.18(토) 10:00   | 제39주년 5·18민주화운동 서울기념식               | 서울광장                 | 서울 5·18행사위           |
| 5.17(금)~19(일)   | 5·18역사왜곡 진상규명 캠페인                   |                      |                      |
| 5.25(토)~26(일)   | 제39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 청소년 광주역사기행       | 광주광역시                | 부산 5·18행사위           |
| 5.17(금) 19:00   | 5·18민주화운동 정신계승 대전시민대회               | 대전역 서광장              | 대전총청 5·18행사위         |
| 5.17(금) 19:00   | 5·18 제39주년 기념식 및 기념문화제              | 동성로 민주광장             | 대구경북 5·18행사위         |
| 5.6~5.17        | 5·18민주화운동 기념 제39주년 사진전              | 228기념중앙공원, 대구시 동성로 등 |                      |
| 5.15(수)         | 제39주년 5·18민주화운동 원주광역시 기념식 및 특별초청강연회 | 원주 영랑교회              | 강원원주 5·18행사위         |
| 5.18(토) 18:00   | 제39주년 5·18민주화운동 전북기념식               | 풍납동 광장(예정)           | 전북 5·18행사위           |
| 5.17(금)~5.18(토) | 제2회 5·18전북영화제                       | 전주시내마                |                      |
| 5.17(금)         | 창원시민과 함께하는 5·18기념 전야제               | 창원용지공원, 장미공원         | 경남 5·18행사위           |
| 5.17(금) 19:00   | 5·18평화문화제                           | 제주시청 앞               | 제주 5·18행사위           |
| 5.24(금)~26(일)   | 제39회 자유법오월민중제                       | 독일 베를린               | KOREA VERBAND 코리아협의회 |
| 5.17(금) 18:00   | 전야제(강연 및 한국기념행사 시청)                 | 이음카페                 | 미주서부                 |
| 5.18(토) 17:00   | 기념식 및 문화행사, 사진전시회 등                 | LA한국교육원 강당           |                      |



5·18 기념행사 보고회 7일 오전 광주시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5·18기념사업 추진상황 보고회'에서 이용섭 광주시장과 장휘국 광주교육감이 5·18 민주화운동 기념행사위원들과 기념촬영하고 있다.

## “5·18 왜곡·편향 근절 위해 국가차원 진상보고서 발간 필요”

민주평화연구원 국회서 토론회

美정부 5·18 기밀문서 해제

왜곡 형사처벌 규정 마련 촉구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왜곡과 편향을 없애기 위해서는 국가차원의 진상보고서를 발간하고, 홀로코스트 부인에 대해 형사처벌하는 독일처럼 형사처벌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민주평화당 최경환(광주 북구을)의원

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는 이덕재(5·18민주화운동기록관 학예연구사), 최용주(5·18기념재단 연구위원), 유민지(민주연론시민연합 운영팀장), 김재운(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이 발표자로 나서 다양한 의견을 내놓았다.

이덕재 학예연구사는 “5·18에 대한 가짜 뉴스, 왜곡과 편향 책동의 근절과 함께 계엄군의 고문·학살·암매장, 성폭력 등 인권 유린과 헬기 사격의 실제 확인, 무기 피탈 시간 조작, 광주교도소 습격 주장의 허위성이 규명돼야 한다”면서 “더 이상의 사회적 갈등과 논란을 끝내고 통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국가차원의 진상보고서 발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최용주 연구위원은 ‘진실 재판’ 도입

을 제안했다. 최 연구위원은 “현행의 진상규명특별법에 의한 조사는 법적 강제력이 제한돼 있어서 진실규명에 한계가 있다”면서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아르헨티나와 칠레가 과거사 청산 과정에서 운영했던 진실재판 제도의 도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정부도 완전한 형태의 미국 기밀문서 해제 및 우리 측이 요구하는 신규 문서의 추가적 기밀 해제를 미국 정부에 공식적으로 요청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유민지 운영팀장은 “5·18 역사 왜곡은 언론 적폐가 청산되지 않아 벌어진 폐해다. 이를 바로잡기 위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비판과 감시가 필요하다”면서 “그렇지

않으면 5·18 민주화운동은 또다시 유린당할 수밖에 없다”고 분석했다.

김재운 교수는 “홀로코스트 부인에 대해 독일은 형법적 규제의 방식을 채택했다”면서 “역사적 사실인 5·18 민주화운동을 부인하는 행위에 대해 독일 형법 제130조 제3항의 대중선동죄와 유사한 형사처벌 규정을 마련해 형법적 규제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최경환 의원은 “학생들이 숙제 하고 학교 가듯, 모든 숙제를 풀고 5·18 묘지에 참석하는 정치권이 됐으면 좋겠는데 안타깝다”면서 “5·18 진상규명과 관련해 논의된 정점과 정책적 과제를 종합적으로 정리하겠다”고 밝혔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 이용섭시장 “5·18진상규명위 출범 한국당 협조해야”

이용섭 광주시장은 7일 제39주년 5·18 기념행사를 앞두고 자유한국당은 역사의식을 갖고 진상규명위 출범과 특별법 제정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이 시장은 5월 정례대회에서 “올해는 5·18 민주화 운동이 39주년을 맞는 해”라며 “5·18 기념행사를 전국적 행사로 뜻깊게 개최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어 “5·18 전국화는 단순히 행사를 전국화하지는 않고, 민주주의를 위해 불의에 저항하고 극한 상황에서도 나눔과 연대를 실천한 오월 정신의 전국적 확산을

의미한다”며 “이번 39주년 행사의 전국화 성과를 바탕으로 내년 40주년 행사는 5·18의 세계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미리미리 준비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5·18 39주기 전에 5·18의 가치를 폄하하고 왜곡하는 세력이 발붙일 수 없도록 진상규명 조사위원회의 출범과 5·18왜곡처벌 특별법이 제정되기를 간절히 원했지만 무산돼 안타깝기 그지없다”며 “자유한국당이 역사의식을 갖고 협조해주시기를 150만 광주시민의 이름으로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최권원 기자 cki@

## 문대통령·트럼프 대통령 통화…北발사체 등 논의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의 단거리 발사체 발사에 따른 한반도 정세 변화에 공동으로 대응하고 있는 가운데 7일 밤 늦게 한·미 정상이 통화를 가질 예정이어서 주목된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7일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이 이날 밤늦게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할 예정”이라며 “이번 통화에서 양 정상은 4·11 한미 정상회담 후 전개된 한반도 상황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현 국면을 진전시키기 위

한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통화에서 가장 주목되는 부분은 북한이 발사한 발사체의 성격을 두고 어떤 의견을 주고받느냐가 될 전망이다.

실제로 북한 발사체의 성격을 미사일로 규정한다면 유엔 안보리 결의에 위반되는 것인 만큼 한반도의 긴장 속위는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북한 발사체를 무엇으로 보느냐는 향후 한반도 정세에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임동욱 기자 tuim@

가까운 무안에서 출발해요~ 이제 편리하게 가까운 무안공항에서 조이투어와 함께 하세요! 쭉~우~우~

2억원 영업보증보험 가입업체  
**조이투어**  
JOY TOUR  
여름 길이 즐거운 동반자  
대표전화: 1522-1901  
FAX: 062-234-3141  
광주광역시 동구 구성로 180(금남로5가)  
http://www.joytour.kr  
일본여행 / 국내·제주여행 / 해외여행 전문여행사 조이투어  
대표이사 최금환

### 특가가 쏟아진다! 빨리 GET 하세요!♥

**무안 ↔ 오이타** *살랑~살랑 봄바람 타고*

매주 월,수,금 출발(최소인원 7명 이상 출발보장)

- ◆ [5/20,22일 출발] 초특가 벳부&유후인 3일 299,000원
- ◆ [월/수 출발] 오이타 벳부&유후인 3일 399,000원~
- ◆ [금 출발] 벳부&유후인&야나가와 벳놀이 4일 699,000원~

**특가 & 집중모객**

- ◆ 오이타 초특가 5/20,22일 출발 299,000원!!
- ◆ 다낭(베트남항공) 5월 10,14일 출발 특가 399,000원!!
- ◆ 폭탄특가 대만 / 방콕 / 블라디 / 코타 / 마카오 / 세부 329,000원~

**무안 ↔ 나트랑(젯스타항공)**

7월 26일부터 총 10항 출발

[나트랑/달랏/무이네] 3박5일 849,000원~

**무안 ↔ 동경 매일출발** *일본의 수도 도쿄를 무안에서!*

★최저모객인원 7명 출발보장★

- ◆ 출발확정 5/10, 24, 31 출발 동경&하코네 3일 799,000원!!
- ◆ [정통] 동경&하코네 3일(디즈니랜드선택관광) 749,000원~
- ◆ [정통] 동경&하코네 4일(디즈니랜드선택관광) 889,000원~

**무안 ↔ 몽골** *가격은↓, 상품질은↑*

★6월 15일 ~ 8월 28일 까지(매주 수,토 출발)★

- ◆ [수요일] 4일 1,098,000원~ / [토요일] 5일 1,148,000원~
- ◆ [항공+호텔] 4일 649,000원~ / 5일 699,000원~

**무안 ↔ 다낭(베트남항공&제주항공)**

[베트남항공] 매주 화,금출발 / [제주항공] 매일 출발

[정통] 399,000원~ / [폼격] 699,000원~

**무안 ↔ 대만 정기편(제주항공)**

매주 월,화,수,목,금,토,일 매일출발 3박4일

- ◆ [노팁,노음선] 스펀,단수이,야류,지우펀 699,000원~
- ◆ [화련] 화련,테로각,지우펀,야류 479,000원~

**무안 ↔ 블라디보스톡(제주항공)**

- ◆ [월,수,토요일 출발] 블라디 ONLY 2박4일 549,000원~
- ◆ [월,수,토요일 출발] 블라디+우수리스크 2박4일 599,000원~

※모든 여행 상품에 따라 포함사항과 불 포함사항이 다르오니 문의해주시길 바랍니다.

※ 양국정부인허가조건 ※ 운항스케줄이 항공사 및 천재지변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출발 날짜와 인원 수에 따라 상품 가격이 다르오니 홈페이지 및 전화상담을 통해 문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 당사는 관광진흥법 및 공정거래위원회의 중요 표시, 광고사항을 철저히 준수합니다. ※ 기획여행 보증보험 가입 업체 등록번호 : 제동다2003-1호

◆ 공동주최 : 여행정보 민간 기조, 여행정보원 가입제외대상 : 1인원, 국내선은 5천만원, 관광진흥법제외기조, 공항 및 부두 이용료, 유류할증료 포함 ◆ 교통편 : 항공 및 선박, 전담버스 / 전 지역 ◆ 상거 요금은 환율 및 항공요금 변동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2억원 영업보증보험 가입 / 여행정보원 가입 업체 ◆ 예약시 계약서(취소 규정) 및 일정표를 반드시 참고하십시오. ◆ 경비업(인원, 기사/가이드, 봉사료, 선박료, 각종 비자비용 별도) ◆ 최소 출발인원 : 상품에 따라 다름

아름다운 여행이 시작되는 곳! **조이투어**  
JOY TOUR